

SM, Ellba 루머에 53달러 폭등!

FOB Korea 850-855달러 기록 ... 촉매전환 불구 100% 가동률

SM 가격이 1월9일 FOB Korea 톤당 850-855달러로 53달러 폭등했다.

아시아 SM 시장은 Naphtha를 비롯해 원유, Benzene 및 Ethylene 가격상승에 힘입어 3주 연속 보합세를 탈피해 1월 첫째 주에 60달러 가까이 폭등했다.

또 장거리 운송료가 상승하고 2004년 1/4분기 정기보수 계획에 따른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아시아 SM 가격은 강세를 더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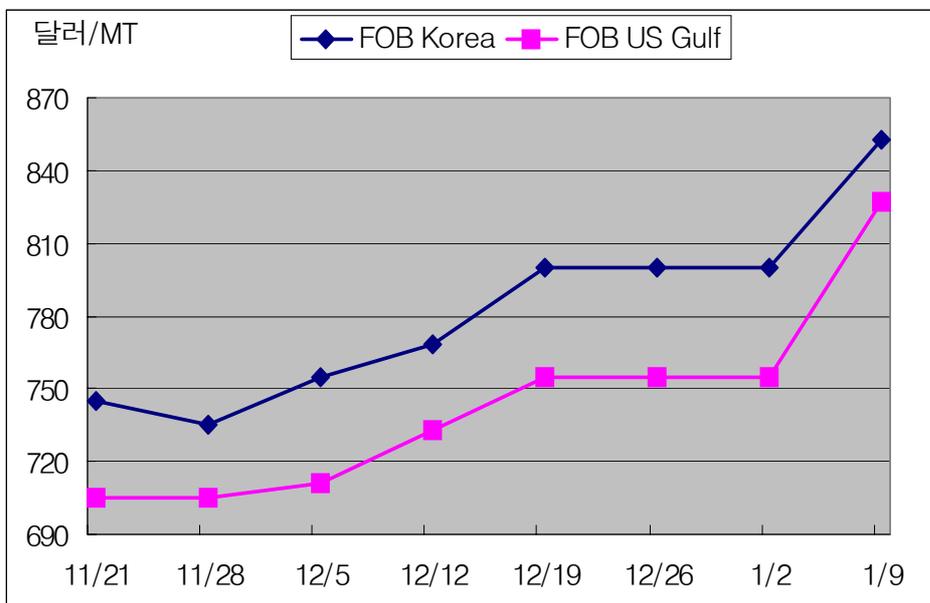
더욱이 Ellba Singapore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SM 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다.

Ellba는 실제로 지난 화요일까지 촉매를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시장에는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Ellba가 촉매전환 및 국부적인 플랜트 보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플랜트 가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Ellba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촉매 전환공사를 실시했으며 보수기간 동안 약 100%대의 가동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화요일 및 수요일에는 Ellba의 플랜트 가동중단 루머로 인해 여러 참여기업들이 Cargo 물량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FOB Korea 가격은 주초 톤당 820-825달러에서 시작해 목요일에 약 878달러로 상승했다.

SM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SM 가격도 1월7일 FOB US Gulf 파운드당 37.25-37.75센트로 톤당 평균 827달러를 기록해 50달러 폭등했다. 유럽가격은 또한 FOB Rotterdam 톤당 800-810달러로 약 60달러 상승했으며 4/4분기 계약가격은 톤당 665-680유로로 마감됐다.

<Chemical Journal 2004/01/16>